

# 체체파리의 비법

THE SCREWFLY SOLUTION



1978년 네볼라상 수상

1978년 휴고상 노미네이트

1978년 로커스상 노미네이트

## 체체파리의 비법

THE SCREWFLY SOLUTION

북위 2도, 서경 75도에 앉은 젊은 남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풍기에 슬쩍 짜증스러운 시선을 던지고 계속 편지를 읽어나갔다. 그는 쿠야판에서는 호텔로 통하는 짐통 같은 방에서 다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다른 집 여자들은 어떻게 **버티는** 걸까? 난 앤아버 시에서 하는 평론 프로그램이며 세미나들로 바쁘게 지내면서 “아, 네. 앨런은 콜롬비아에서 생물학적인 해충 구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라고 밝게 말하고 다녀. 하지만 속으로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열아홉 살짜리 검은 머리 미녀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을 상상하지. 그것들은 하나같이 사교에 헌신하느라

러백. 지금 적도수렴대\*가 어디인지 기억하는 게 단서래.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생태학에 뛰어난 당신이라면 이해하겠지. 그 기사들에서 내 눈에 보이는 내용은 끔찍하게 많은 여자가 살해당하거나 학살당했다는 것뿐이야. 최악은 강에 “여성들의 시체로 이루어진 뗏목”이 생겼다는 뉴텔리 사건이었어. 제일 어처구니없는(!) 기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라고 하셨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와 세 딸과 고모를 쏘아버린 텍사스 군 장교 사건이었고.

바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요일에 낙수 흙통을 뜯어내서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살펴보려는데 도와주려 들르겠대. 바니는 지금 신이 났어. 당신이 떠난 후에 바니의 전나무 나방 안티페로몬 연구가 마침내 보상을 받았거든. 당신도 바니가 2,000번 넘게 실험한 거 알지? 2,097번째 화합물이 성공한 모양이야. 그게 뭘 하는지 몰았더니 킁킁거리기만 해. 당신도 바니가 여자들에게 얼마나 수줍어하는지 알잖아. 어쨌든 그걸 한 번만 뿌리면 다른 생물은 하나도 해치지 않고 숲을 구할 수 있다나 봐. 새와 사람은 온종일 먹어도 멀쩡하대.

음, 소식은 이게 다야. 에이미가 학교에 가기 위해 일요일 날 시카고로 돌아간다는 소식만 빼면. 집이 무덤 같아지겠어. 지금 에이미가 날 최악의 적으로 여기는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애가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앤지는 지금 에이미가 부루퉁하고 도발적인 사춘기에 접어든 거래. 에이미가 아빠에게 사랑을 보내.

\*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열대수렴대 혹은 적도무풍대라고도 하는데 적도 지역에 둘러쳐진 띠 모양의 저기압대이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난 당신에게 온 마음을 다 보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전부를.

— 당신의 앤

앨런은 그 편지를 파일에 안전하게 끼워넣고, 집과 앤에 대한 몽상에 잠기는 대신 남아 있는 얇은 우편물 다발을 훑어보았다. 바니가 보냈다는 ‘두툼한 봉투’는 없었다. 그는 마을 발전기가 야간 전력 차단에 들어가기 전에 전등선을 잡아당겨 뽑고, 구깃구깃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바니가 언급한 장소들이 그의 머릿속을 심란하게 회전하는 안개 낀 지구본 위로 점점이 흩어졌다. 무엇인가가…

하지만 그러다가 그날 진료소에서 본, 기생충에 끔찍하게 감염된 아이들의 기억이 생각을 점령해버렸다. 그는 수집해야 할 데이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행동 연쇄 속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아.’ 바니, 그러니까 반 하트 브래스웨이트 박사가 그 말을 얼마나 자주 그의 머릿속에 옥여넣었던가. 어디일까, 어디? 아침에는 즐기파리가 더 많이 든 우리로 작업을 시작해야겠다.

\*

그 순간, 8천 킬로미터 북쪽에서는 앤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아, 여보, 여보, 당신이 처음 쓴 편지 세 통이 여기 와 있어. 한꺼번에 도착했지 뭐야. 당신이 편지를 쓰고 있을 줄 **알았어**.

가무잡잡한 상속녀들에 대해서 한 말은 농담이었으니 잊어버려. 사랑하는 당신, 난 알아. 난 알아... 우리 사이를. 그 끔찍한 줄기파리 애벌레들,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 당신이 내 남편만 아니었으면 성인聖人인 줄 알았을 거야.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신 편지를 집안 여기저기에 붙이니 외로움이 한결 덜해. 여기는 어쩐지 조용하고 무서운 느낌이 든다는 점을 빼면 이렇다 할 소식은 없어. 바니와 같이 흠통을 뜯어냈더니 다람쥐가 모아둔 열매가 잔뜩 썩어있지 뭐야. 분명히 위에서 떨어뜨렸을 테니, 흠통 위에 철망을 붙여야겠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사다리를 쓸 거야.)

바니는 묘하게 암울한 분위기야. ‘아담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조사 위원회가 정말로 발족한다면 위원으로 들어갈 모양이야. 이상한 건 아무도,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지. 너무 큰 일이라 그런 걸까. 셸리나 피터스는 신랄한 평을 몇 가지 내보냈어. ‘한 남자가 아내를 죽이면 살인이라고 부르지만, 충분히 많은 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생활 방식이라고 부른다.’ 같은 거. 난 사태가 번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언론에 문제를 확대하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어. 바니는 이 상황을 전염성 히스테리로 보고 있대. 당신에게 이 얇은 종이에 인쇄한 소름 끼치는 인터뷰를 보내라고 한 사람도 바니야. 물론 이 인터뷰는 신문에 나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용한 게 더 나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이지만 않는 것 같아. 바니가 준 인터뷰를 읽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폴린에게 전화해서 괜찮은지 확인했어. 털어놓

지 못할 말이라도 있는지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 내 친동생이 말이야.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니 갑자기 다음 달에 여기 와서 지내도 되느냐고 묻는 거 있지. 바로 오라고 했더니 일단 집부터 팔고 오고 싶대. 서둘렀으면 좋겠어.

디젤 자동차는 이제 괜찮아. 필터만 가면 되는 거였어. 필터를 구하느라 스프링필드까지 나가야 했는데, 에디가 겨우 2.5달러에 설치해줬어. 그러다가 정비소 망하겠어.

혹시 당신이 못 맞췄을까 봐 덧붙이는데, 바니가 말한 곳들은 모두 북위 아니면 남위 30도쯤에 있어. 무풍지대야. 내가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바니는 적도수렴대는 겨울에 이동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리비아, 오사카, 그리고 또 한 군대를 덧붙였는데... 그게 어디더라. 그렇지, 오스트레일리아 엘리스 스프링스였어.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지. 바니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네요”였어. 판단은 당신에게 맡길게. 바니같이 뛰어난 학자는 이상할 때가 있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당신, 내 전부를 모두 당신에게 보내. 당신 편지 덕분에 살 수 있어. 하지만 꼭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 얼마나 피곤할지 짐작이 가. 그냥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라는 점만 알아둬.

— 당신의 앤

아 참, 바니가 보내는 물건 때문에 봉투를 다시 뜯어야 했을 뿐이지, 비밀경찰이 한 것이 아니야. 여기. 다시 사랑을 담아. A.

앨런이 이 편지를 읽은 염소 냄새나는 방에서는 빗줄기가 지붕

정신이 없는 데다가 돈은 썩어나고, 섬세한 속옷에선 40인치짜리 가슴이 빠져나와 있겠지. 심지어 40인치면 101.6센티미터라는 사실까지 생각했지 뭐야. 아, 여보, 여보, 아무래도 좋으니 **집에만 무사히 돌아와.**

앨런은 자신이 갈망하는 유일한 육체를 잠시 떠올리며 기분 좋게 웃고 말았다. 그의 여자, 그의 마법인 앤. 그런 다음 그는 일어서서 창문을 조심스럽게 더 열었다. 애처로워 보이는 길고 허연 얼굴이 방을 들여다보았다. 염소였다. 방이 염소우리 옆이어서 악취가 지독했다. 그래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편지를 집어 들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떠날 때 그대로야. 피즈빌 참사가 더 심해졌다는 점만 빼고. 이제는 그걸 ‘아담의 아들들’ 교단이라고 불러. 아무리 종교 단체라고 해도 그렇지, 왜 어떻게 **하질** 못할까? 적십자에서 조지아 주 애쉬튼에 난민 캠프를 설치했어. 생각해봐, 미국에서 난민이라니. 어린 여자에 둘이 난도질당해서 실려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 아, 앨런.

그러고 보니 참, 바니가 당신에게 보내고 싶다면 오려낸 기사 몽치를 가지고 들렀어. 다른 봉투에 넣어 보낼게. 외국 우체국에서 두툼한 편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바니는 당신이 그 편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전하래.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뭘까? 피즈빌, 상파울루, 피닉스, 샌디에이고, 상하이, 뉴델리, 트리폴리, 브리즈번, 요하네스버그, 그리고 텍사스

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코에 대고 다시 한 번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은 다음 접어 넣었다. 그런 다음 바니가 보낸 노란 종이를 꺼내어, 쩡그린 얼굴로 읽기 시작했다.

### 피즈빌 사교집단/아담의 아들들 특집

아칸소 주, 글로브 포크에서 운전병 윌라드 뮤스 병장 진술

우리는 잭슨빌에서 130킬로미터 서쪽으로 가서 경계선에 도착했습니다. 애쉬튼의 존 하인츠 소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T. 파 대위님이 지휘하는 폭동진압 차량 두 대를 호위용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하인츠 소령님은 국립보건연구원 의료팀에 여자 의사가 두 명 있다는 사실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팻시 페트남 박사(일리노이 어바나 거주)는 군사 경계선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레인 페이 박사(뉴저지 클린턴 거주)는 자기가 전뮌시기(전염병학자?)라면서 같이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폭동진압차 뒤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로 한 시간 정도를 달리는 동안 특이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아들들—해방구>라는 커다란 간판이 두 개 있었습니다. 작은 호두 포장 공장 몇 개와 감귤 가공 공장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 있던 남자들이 우리를 보기는 했지만 특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즈빌 바깥, 커다란 감귤 창고 앞에 드럼통을 쌓아서 만든 대형 방책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동네로, 마을이나 도시라기보다는 판자촌과 이동주택 주차장에 가깝습니다. 쇼핑센



터와 개발 단지가 있는 새로운 동네는 2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지요. 산탄총을 든 창고 일꾼이 나오더니 시장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일레인 페이 박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뒷자리에 몸을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블런트 시장님은 경찰차를 타고 왔고, 우리 팀장인 프리맥 박사는 공중위생국장님에게서 받은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프리맥 박사는 시장님의 종교를 모욕하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어요. 블런트 시장님은 우리 팀이 피즈빌 안으로 들어가서 흙과 물 시료를 채취하고 안에 사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장님은 키가 190센티미터쯤 되고 100킬로그램이 넘을 듯한 몸이었는데, 별에 탄 피부에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친근하게 웃고 있었죠.

그러다가 차 안을 들여다보고 일레인 페이 박사를 본 시장님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프리맥 박사가 대화로 진정시켰고, 결국 시장님은 페이 박사더러 창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남아서 페이 박사가 나오지 않게 지켜야 했고, 시장님의 부하 직원 하나가 운전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시장님과 폭동진압차 한 대는 피즈빌로 들어갔고, 저는 페이 박사를 데리고 창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정말 덥고 숨이 막혔어요. 페이 박사가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에 있던 노인에게 말을 걸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은 가버렸고, 박사는 저와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사

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정말이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는 사무실 파일을 뒤지고 거기 있는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죠. 박사는 정부에서 이런 조사를 기대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방에 있던 책자인지 잡지인지를 보여줬는데, <신에게 귀 기울이는 남자—맥클레니 목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상자 가득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고, 페이 박사는 손을 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옆으로 고립된 거나 다름없는 복도를 따라서 화장실로 데려다줬지요. 그쪽에는 문도 창문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박사가 그 뒤에 침대가 있다면서, 누워야겠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창문이 없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박사와 같이 있지 않아도 되니 좋았어요.

책자는 읽어보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에 들었는지와,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상의 진정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리라는 사실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하는 내용이었어요. 징조와 전조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죠. 무슨 주일학교 책자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심오했지요.

잠시 후에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폭동진압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길 건너편 가스탱크 옆 나무그늘에 앉아서 공장 일꾼들과 농담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에 한 명이 기타를 치고 있었죠. 전자 기타 말고 통기타요.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블런트 시장님이 혼자 차를 몰고 와서 공장으로 들

어왔어요. 제가 책자를 읽는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처럼 웃으셨지만, 긴장하신 느낌이었죠. 시장님은 저에게 페이 박사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저는 뒤에 누워있다고 대답했어요. 시장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고, 나가서 문을 닫고 복도를 따라가셨죠. 저는 앉아서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들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어요. 제 점심은 프리맥 박사의 차 안에 있었거든요.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블런트 시장님이 다시 들어왔어요. 물결이 엉망이었어요. 옷은 지저분했고 얼굴은 굵힌 자국들로 피투성이였어요. 시장님은 갈피를 잃은 것처럼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바지 지퍼가 열렸고 옷과 ‘은밀한 부위’에 피가 묻어있는 걸 봤습니다.

무섭지는 않았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님을 앉히려려고 했지만, 저보고 따라오라고, 페이 박사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손짓하더군요. “자네가 봐야 해.” 그러시면서요. 시장님은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가 놓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철 지붕에 반사된 햇빛 덕분에 안이 밝았습니다. 페이 박사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옷매무새는 조금 달라졌지만 다리는 한데 모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블라우스는 말려 올라갔는데, 배에 배인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자국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꼭 입처럼요. 아니, 흘러나오고 있었겠지만,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죠. 또 목도 베여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블런트 시장님이 굉장히 피곤

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피는 닦아내셨더군요. “자네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해하나?”

꼭 제 아버지 같았어요. 더 좋은 말을 찾을 수가 없네요. 저는 시장님이 끔찍한 압박을 받았고, 저를 위해 많은 부담을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장님은 계속해서 페이 박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비밀 여성(?)이라 부르는 종류라고, 제일 위험한 부류라고요. 시장님은 그 여자를 폭로하고 상황을 정화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대단히 솔직하셨고, 저는 혼란 없이 그분이 옳은 일을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책자에 대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세상을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토론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 없이 어떻게 번식을 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꺼내는데 그 사람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인간이 낡고 더러운 짐승의 방식에 의존하는 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 부분, 즉 여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징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롭고 진정으로 깨끗한 방식을 드러내시겠지요. 천사들이 새 생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복종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곳에 주님의 천사를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척 심오한 이야기였고, 제 안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감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왔고 저는 프리맥 박사에게 페이 박사는 잘 해결되어 떠났다고 말한 후 차에 올라서 그들을 해방구 바깥으로 데려

졌습니다. 하지만 방책에서 온 병사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파 대위님이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네 명이 남아서 드림통 방책을 지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 평화로운 곳에 남고 싶었지만, 운전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호의는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전 미치지 않았고 잘못된 것도 없으며 제 변호사가 절 꺼내줄 겁니다.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쿠야판에서는 뜨거운 오후 비가 잠시 그친 참이었다. 앨런은 윌라드 뮤스 병장의 불쾌한 진술서를 내려 놓으면서 가장자리에 바니의 거미 같은 손가락이 흘러 쓴 연필 글씨를 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인간의 종교와 철학은 모두 분비샘이 내는 목소리다. 쉰바이저, 1878년.”

쉰바이저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몰라도 바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는 이해했다. 이 맥 튀인지 하는 작자의 사람 죽이는 미치광이 종교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다. 바니는 무엇인가가 물리적으로 피즈빌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역 종교 선동가가 튀어나와서 그 현상을 ‘설명’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게 원인이든 결과가든 간에 앨런은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피즈빌에서 앤아버까지는 1,3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 앤은 안전할 것이다. **안전해야 한다.**

앨런은 울퉁불퉁한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연구 내용을 돌이켰다. 백만 번이나 물리고 배인 대가로 그는 즐기파리 번식주기의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 약한 고리는 수컷은 대규모로 짝짓기 행동을 하는데, 그에 비하여 배란기 암컷은 드물다는 점이었다. 성별만 뒤집어서 체체파리 비법을 재연하는 셈이었다. 페로몬을 농축하고, 단종斷種시킨 암컷들을 풀어놓는다. 운 좋게도 번식 개체군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몇 계절만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는 계속 살충제를 뿌리게 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살충제는 마구잡이로 죽이고 물속에도 들어가는 데다가, 즐기파리는 어차피 내성을 얻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몇 계절만, 아마도 세 계절만 지나면 즐기파리 개체군을 재생산 가능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콧구멍과 뇌에 그 냄새 나는 애벌레가 붙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더는 없게 될 것이다. 앨런은 웃는 얼굴로 잠에 빠져들었다.

\*

북쪽에서는 앤이 분하고 아픈 마음에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 인정하기는 싫지만, 당신 아내는 조금 신경과민 상태야. 여자다운 불안일 뿐이니 걱정할 건 없어. 여기는 다 정상이야. 소름 끼치도록 정상이지. 신문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니와 릴리언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 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샌디에이고에 있는 폴런이 연결이 되질 않아. 닷새째에는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나한테 소리를 지

르고 끊어버렸어. 폴린이 집을 팔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릴리언은 무슨 〈여성을 구합시다〉 부류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무슨 멸종 위기종 같지? 하, 하. 당신도 릴리언 알잖아. 적십자에서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했나 봐. 하지만 릴리언 말로는 소위 ‘피해 지역’에서 처음에만 쏟아져나왔지 그 후에는 조금씩밖에 빠져나오지 않는대. 아이들도 많지 않다네. 남자애들조차도. 그리고 러벅 주위에서 찍은 항공 사진에 대규모 묘지 같은 것들이 있어. 아, 앨런..., 지금까지로 봐서는 주로 서쪽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이지만, 연락이 끊긴 걸 보면 세인트루이스에서도 일이 벌어지나 봐. 너무 많은 지역이 뉴스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서, 난 남쪽에 살아남은 여자가 하나도 없는 악몽도 꿰어. 그리고 아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한동안은 진정제를 뿌리자는 말이 나오더니 잠잠해졌어.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UN에 있는 누군가는 ‘페미사이드\*’에 대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어. 믿어져? 페미사이드라니, 무슨 데오도란트 이름 같아.

미안, 여보. 내가 조금 흥분한 것 같네. 조지 시얼스가 하나님 의 의지에 대해 떠들면서 조지아 주에서 돌아왔어. 평생 무신론자였던 시얼스가. 앨런, 세상이 미쳐 돌아가.

하지만 드러난 사실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공중위생국장은 라흐웨이 가슴찌기 팀(내가 이 이야기는 안 했지 아마)의 시체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어. 어쨌든, 그들은 어떤 병리 증상도

\* 페미닌+제노사이드의 합성어로 여성 학살을 뜻함

찾지 못했어. 밀튼 베인즈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성자의 뇌와 정신병적 살인자의 뇌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대상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

안달복달은 이쯤 해둘게. 당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다 끝나서 예전 이야기가 되어 있겠지. 여기는 다 괜찮아. 자동차 머플러를 다시 고쳤어. 그리고 에이미가 방학을 해서 집에 와. 그러면 나도 멀리서 벌어지는 문제들에는 신경을 못 쓰게 되겠지.

아, 마무리로 재미있는 일을 쓸게. 바니의 효소가 전나무 나방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앤지가 말해줬어. 수컷이 암컷과 접촉한 후 교미를 위해 뒤로 방향을 돌리지 못하게 막아서, 수컷이 암컷의 머리와 짝짓기를 하게 만든다나 봐. 이가 빠진 시계태엽처럼. 암컷들은 어리둥절하겠지. 바니는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못할까? 정말이지 상냥하고 수줍음 많은 양반이라니까.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바니가 보내는 물건이 들어가 있어. 난 읽어보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여보. 다 괜찮으니까. 사랑해. 정말 사랑해.

— 언제나, 언제까지나 당신의 앤

2주 후 쿠야판에서 바니가 동봉한 내용물이 봉투에서 빠져나왔을 때, 앨런도 그 내용을 읽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부시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고 흔들거리는 탁자 위에 쌓인 공책들을 묶었다. 맨 위에는 도미니크 수녀에게 보내는 글을 휘갈겨 썼다. 줄기파리 따위, 두려움을 모르는 아내 앤의 차분한 필체가 떨



리고 있다는 사실을 빼면 다른 일들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치명적인 광기가 날뛰는데 그의 여자와 자식에게서 8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니, 그는 빈약한 소지품을 더풀백에 쟁여 넣었다. 서두르면 보고타까지 가는 버스를 잡아타고 마이애미행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마이애미까지 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북쪽으로 가는 노선도 엄청나게 붐볐다. 그는 빠른 대기석을 얻어내지 못했다. 여섯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앤에게 전화할 시간이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선을 타고 터져 나온 기쁨과 안도의 물결에 대비하지 못했다. “신이시여 고맙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아, 앨런, 여보, 당신 정말로 못 믿겠어.”

앨런도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고, 말하는 내용이 줄기파리 데이터와 뒤죽박죽으로 섞였다. 전화를 끊었을 때는 두 사람 다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여섯 시간. 그는 아르헨티나 국영항공 부스 맞은편에 놓인 닳아 빠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마음의 반은 두고 온 진료소에, 나머지 반은 옆으로 지나다니는 군중들에게 두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무엇인가 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이애미에 오면 으레 눈을 즐겁게 해주던 화려한 군상은 어디 있는 걸까? 딱 달라붙는 파스텔톤의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자들의 행렬은? 주름 장식, 부츠, 요란한 모자와 머리 모양, 깜짝 놀랄 정도로 드러내 놓은 갓 태운 피부, 화려한 옷감에 싸인 채 제멋대로 흔들리는 가슴과 엉덩이는? 여기에는 없었다. 하지만 잠깐. 자세히 보니 언뜻 보기 흉한 파카 아래에 젊은 얼굴을 숨기고, 몸에는 특징 없는 험렁한 치마를 걸

친 두 여자가 보였다. 사실 공항 안 어디에서나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모자 달린 판초, 겹겹이 껴입은 옷과 험령한 바지, 칙칙한 색깔들. 새로운 유행인가? 아니, 앨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소심하게 움직여 다녔다. 그리고 무리 지어 다녔다. 그는 혼자 있던 여자애가 앞서 가는 다른 여자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분명히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그들은 말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시선을 끌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지 정장을 입고 의연하게 아이들 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나이 지긋한 부인마저도 불안하게 주위를 훑어다녔다.

그리고 그는 맞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국영항공 안내대에서도 이상한 부분을 보았다. 두 줄 위에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MUJERES>. 여자라는 뜻이었다. 그 줄은 볼품없는 사람들로 붐볐고 무척 조용했다.

남자들은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줄에 서서 자기들의 짐을 건어차면서 초조해 하고, 어슬렁거리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농담을 했다. 그러나 앨런은 공기 속에 떠도는 자극제 같은 긴장감의 저류를 느꼈다. 뒤쪽에 보이는 가게 앞에서는 남자들 몇 명이 소책자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공항 안내원 한 명이 제일 가까이 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이더니 조금 옆으로 이동했다.

앨런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옆자리에 놓인 <마이애미 헤럴드> 지를 집었다. 놀랄 만큼 얇았다. 그는 잠시 국제 뉴스에 몰두했다. 몇 주 동안이나 신문을 보지 못한 덕분이었다. 신문도

이상하게 빈 느낌이었고, 나쁜 소식마저 고갈된 것 같았다. 그동안 계속되던 아프리카 내전은 끝이 났거나 보도가 사라졌다. 무역 정상 회의는 곡물과 강철 가격을 두고 입씨름 중이었다. 저도 모르게 사망기사 페이지를 보았는데, 다닥다닥 붙은 부고란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작고한 전 상원의원 사진이 두드러졌다. 그의 눈길은 그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두 개의 광고에 떨어졌다. 하나는 미사여구가 많아서 금방 이해할 수 없었으나, 다른 하나는 굵고 평이한 인쇄체로 선언하고 있었다.

### 포세트 장례식장

### 애석한 일이지만

### 저희는 더 이상 여성 시신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망연히 그 광고를 보면서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뒷면의 해운 뉴스에는 <항해 위험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를 읽었다.

**AP통신/나소(바하마):** 해터러스 곳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만류에서 장애물에 충돌한 정기 유람선 ‘카리브 제비’ 호가 오늘 항구까지 견인되었다. 문제의 장애물은 여성 시체들이 걸린 상업 어선용 예인망의 일부로 밝혀졌다. 이는 플로리다와 멕시코만에서 유사한 예인망이 쓰였다는 보고를 뒷받침하는데, 그중에는 2킬로미터 넘게 친 예인망도 있다고 한다. 태평양 해안에서부터 멀리 일본에서까지 들어온 비슷한 보고들은 연안 항해에 위험이 증

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앨런은 신문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앉아서 이마와 눈을 문질렀다. 집에 가야겠다는 충동에 따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사람처럼 혼란스러웠다. 아직 다섯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는 마침내 바니가 보낸 물건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꺼내어 폈다.

맨 위 종이는 <앤아버 뉴스> 지에서 오려낸 듯했다. 릴리언 대쉬 박사가 같은 단체 소속 회원 수백 명과 함께 백악관 앞에서 무허가 시위를 벌인 죄로 체포당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는데, 이 점이 특히 꽤섬하게 여겨졌다. 많은 여성 단체가 참여했는데, 앨런이 보기에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에 가까운 듯했다. 당시 대통령이 시내에 없었음에도 이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한 모양이었다.

그다음 소식은 바니의 신랄한 유머감각 덕분에 들어간 게 분명했다.

**UP 통신/바티칸시, 6월 19일.** 교황 요한 4세는 오늘, 인간이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바울의 정화’ 교과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할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대변인은 가톨릭 교회는 이런 교과들에 어떤 입장도 없으나, 인간에 대한 신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신에게 ‘도전’한다거나 신으로부터 ‘도전’받는다는 교리 일체는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바울의 정화’ 교과 대변인 파줄리 추기경은 성서에서 여자

는 남자의 일시적인 동반자이자 도구일 뿐이라고 정의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추기경은 여자들은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그저 과도기적인 수단 또는 상태일 뿐이라고 한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행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다음은 <사이언스> 지 최근호를 복사한 얇은 종이였다.

### 페미사이드 전담 비상 위원회 요약 보고서

최근 국지적인 형태이긴 하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는 세계 역사상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한 시기에 여러 단체나 파벌들이 벌였던 유사한 사건들의 재연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근본 원인은 사회적, 기술적인 변화 속도이다. 인구 압력이 이를 증폭시키고, 세계적인 동시 통신의 발달이 그 분포와 범위를 키우면서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 이는 의학적이거나 전염병학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병리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17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다양한 광증, 예를 들면 ‘무도병’ 같은 것들에 가까우며 그런 광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로를 거쳐서 사라질 것이다. 피해 지역들 주위에서 일어난 천년왕국론 계통의 사교집단들은 서로 무관해 보이며, 오직 여자들을 제거하는 “정화”의 결과로 새로운 인류 재생산의 방법이 드러나리라는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다음 내용을 권고한다. (1) 선동적이고 감상적인 보도는 중단할 것 (2) 중심지역에서 도망친 여자들을 위한 난민 센터를 설치, 유지할 것 (3) 군 저지선에 의한 피해 지역 봉

쇄를 유지, 강화할 것 (4) 냉각기를 거쳐 광증이 진정되면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지원팀과 적절한 전문가가 들어가서 복구 작업에 착수할 것.

### 전담 위원회 소수파의 반대 의견서 요약본

이 보고서에 서명한 아홉 위원은 엄정히 따지자면 페미사이드에 전염성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사태 발발지 간의 지리적인 연관성을 보면 도저히 이를 순수하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최초 발발은 위도 30도선 주위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적도수렴대에서 상층풍의 하강기류가 불어오는 주요 지역이다. 그러므로 상층 적도 대기에 존재하는 어떤 병원체나 조건이, 계절적인 변화 요인을 갖고 30도대를 따라 지상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 요인은 늦겨울 동안에는 하강기류가 동아시아 대륙에서 북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로, 그 선에서 남쪽(아라비아, 서인도,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들은 사실상 최근까지 페미사이드를 겪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야 하강기류 지대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남반구에서도 유사한 하강기류가 일어나며, 남반구에서의 사태 발발은 프리토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앨리스 스프링스를 관통하는 30도대를 따라서 보고되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정보를 구할 수 없다.)

이런 지리적 상관관계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그러므로 물리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적인 원인에 대해 더 강도 높게 찾아보아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알려진 진원지들로부터의 확산 정도를 바람 상황과 상호 비교해 볼 것을 긴급히 권고한다. 북위, 남위 60도에 있는 2차 하강류 지대를 따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소수와 서명)

반하트 브래스웨이트

앨런은 오랜 친구의 이름을 보고 추억에 잠겨서 웃고 말았다. 그 이름이 세상에 안정과 정상성을 되찾아주는 기분이었다. 또 멍텅구리들 천지에서서도 바니만큼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앨런은 생각에 잠겨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 얼굴은 집에 있는 앤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달라졌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그녀를, 그에게 폭 빠져 있는 내밀하게 아름답고 늘씬한 몸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피어났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이 결혼한 것은 우정 때문이었고 친구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들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했다. 앨런은 몸집이 크고 딱 바라진 어깨에 금발이었고, 앤은 호리호리한 갈색 머리였다. 둘 다 수줍음이 많고,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고, 사색적이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우정은 유지되었지만, 섹스는 썩 대단치 않았다. 관습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이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중하게 서로를 안심시키고, 속으로는 실망하는 관계였다.

그러다가 에이미가 아장아장 걸을 때쯤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 관능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내면의 길이 천천히 열렸고, 그

해방은 예상치 못한, 온전히 육체적인 지복(至福)으로 이루어진 비밀 천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덕분에 콜롬비아로 가는 일이 더 고통스럽기도 했다. 그는 오직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다시 갖게 된다는 것은…, 이별이라는 양념 덕분에 세 배는 더 매력적이었다.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움켜쥐고… 그는 환상에 반쯤 잠긴 채 흥분한 몸을 숨기려고 앉은 자세를 바꿨다.

그리고 에이미도 있겠지. 앨런은 그에게 착 달라붙는 사춘기 이전의 작은 몸을 떠올리고 씩 웃었다. 그래, 에이미는 버거워지고 있었다. 남성인 앨런이 아이 어머니보다 훨씬 에이미를 잘 이해했다. 에이미에게 사색적인 면은 없었다. 하지만 앤, 그의 섬세하고 숫기 없는 여인과 함께라면 그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황홀경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리라. 처음에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겠지. 말은 하지 않고 음미하면서, 눈빛 속에 점점 강해지는 흥분을 담고 소식을 주고받겠지. 그다음에는 가벼운 접촉. 그다음에는 두 사람의 방을 찾고, 옷이 떨어지고, 애무, 처음에는 부드럽게 살과, **나체**…; 섬세하게 괴롭히다가, 끌어안고, 처음으로 삼입….

머릿속에 무시무시한 경고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꿈속에서 튕겨 나와서 주위를 보다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머니칼을 펼쳐 쥐고 뭘 하는 거지?**

아연한 그는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더듬어보았고, 남아있는 촉각 심상이 애무가 아니라 연약한 목을 조르는 손이었으며 삼입이라고 생각한 감각은 심장을 찾아서 꽂아넣은 칼날의 감각이었음을 깨달았다. 팔과 다리가 무엇인가를 때리고 짓밟은 듯이 옥신거렸다.



그리고 에이미는….

아, 신이시여. 아, 신이시여….

섹스가 아니라 피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가 꿈꾸고 있었던 건 그것이었다. 성행위도 있기는 했지만, 그 행위는 죽음의 엔진을 몰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칼을 접어 치우면서 그저 걸렸다는 생각만 되풀이, 또 되풀이했다. 나도 걸렸어. 뭔지는 몰라도 걸린 거야. **집에 갈 수 없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일어서서 비행기 표를 교환하러 유니티드 항공 안내대로 향했다. 줄이 길었다. 기다리는 동안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여기 마이애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앤아버로 돌아가서 바니에게 의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니뿐이었다. 그래, 그것이 최선이였다. 하지만 먼저 앤에게 경고해야 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앤이 겨우 받았을 때 그는 중언부언 말을 쏟아내고 말았다. 앤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앨런이 비행기 연착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걸러버렸어. 잘 들어, 제발, 앤. 내가 집에 가거든 절대 당신 가까이 가게 놔두지 마.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연구실로 갈 생각이지만, 자제력을 잃고 당신에게 가려고 할지도 몰라. 바니는 거기 있어?”

“응, 하지만 여보…”

“잘 들어. 어쩌면 바니가 날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저

절로 나아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안전하지 않아. 앤, 앤, 내가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 무, 무기를 구해. 집에 가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하지만 혹시 내가 집에 가거든, 당신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게 해. 에이미한테도. 이젠 병이야. 진짜야. 날, 날 야생 짐승처럼 대해야 해. 앤, 이해했다고 말해. 그러겠다고 해.”

통화를 끝낼 때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면서 자리에 다시 앉아서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자 머리가 조금 더 맑아졌다. **박사, 생각을 해야지.** 그 험오스러운 칼을 꺼내어 쓰레기통에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니가 보낸 물건이 주머니 속에 하나 더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구겨진 종이를 폈다. <네이처> 지에서 오려낸 내용 같았다.

맨 위에는 바니가 흘려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유일한 사람. 이제는 영국도 감염. 오슬로, 코펜하겐은 연락 두절. 바보들은 아직도 말을 듣지 않아. 거기 꼼짝 말고 있게.”

### 글래스고 대학, 이언 매킨타이어 교수로부터의 통신

수컷의 공격성/약탈 행동 표현과 성적 재생산 행동 표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 종에게 곤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밀접한 연계는 (a) 움켜쥐기, 올라타기 등 약탈과 성적 추구 양쪽에 같이 쓰이는 신경 근육 경로가 많다는 점과 (b) 양쪽 모두 유사한 아드레날린 자극 상태를 촉진한다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다른 많은 종의 수컷에서도 동일한 연계를 볼 수 있다. 어떤 종은 공격과 교미 표현이 서로를 대체하거나

공존하기조차 하는데, 친숙한 예로 흔한 집고양이를 들 수 있다. 많은 종의 수컷은 삼입 행위 중에 받아들이는 암컷을 물고, 핥고, 상처를 입히고,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격한다. 수컷의 공격이 있어야만 암컷의 배란이 이루어지는 종들도 있다.

모든 종은 아니라도 많은 종에서 공격 행동이 먼저 나타나고, 적절한 신호가 주어지면 그것이 교미 행동으로 바뀐다(예: 세 갈래 가시고기와 유럽 울새). 억제 신호가 없으면 수컷의 호전적 반응이 계속되어 암컷은 공격을 받거나 쫓겨간다.

그러므로 현재 위기의 원인은 고등 영장류의(주: 동물원의 고릴라와 침팬지들도 최근에 짝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붉은털원숭이의 관찰 예는 없다) 전환 혹은 유인 기능 실패를 초래하는 물질, 아마도 바이러스나 효소 수준의 물질로 추측함이 적절하겠다. 이러한 기능 장애는 짝짓기 행동의 실패가 공격적/약탈적인 반응으로 바뀌거나 이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흥분하면 공격만 하게 되고, 흥분을 일으키는 대상의 파괴를 통해서만 흥분을 해소하게 된다는 뜻이다.

관련하여 정확히 이런 상태가 흔한 남성 기능 이상으로 일어나며, 그런 경우 성적 욕망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성적 욕망의 완성으로 살인이 일어난다는 점을 언급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서 논한 공격성/성교 연계는 수컷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해둔다. (전만 반사 같은) 암컷의 반응은 다른 본성에 속한다.

앨런은 그 구겨진 종이를 오랫동안 쥐고 앉아 있었다. 사방에 느껴지는 음침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 스코틀랜드인의 건조하고 딱딱

한 표현들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환경 오염이나 그런 이유로 어떤 물질이 생긴 거라면, 아마 그 물질에 대항하고, 걸러내고, 중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아주아주 조심스럽게 앤과의 삶과 성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렇다. 그들의 사랑놀이는 상당 부분 생식기를 통한, 성적으로 완화된 야만 행위로 볼 수 있었다. 사냥 놀이랄까..., 그는 얼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어느 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성행위에 내재한 공포 요소.” 누구였지? 프리츠 라이버였나? 어쩌면 사회적 거리감의 침해가 또 다른 위협 요소일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게 우리의 약한 고리라고, 우리의 취약점이라고... 칼을 손에 쥐고 폭력적인 공상에 잠긴 자신을 깨달았을 때 경험한 무시무시한 확신이 되돌아왔다. 공상 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옳은 길이고, 유일한 길 같았다. 바니의 나방들도 암컷의 엉뚱한 부위에 짹짹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한참이 지나서 생리적 욕구를 느낀 그는 화장실을 찾았다. 제일 깊숙한 칸막이 문을 막고 있는 옷더미를 빼면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옷더미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옷이 놓인 자리에 고인 적갈색 응덩이와, 푸르스름한 둔덕 같은 짙은 엉덩이를 보았다.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뒷걸음질 쳐 나가서 제일 가까운 균중 속으로 달아났다.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그 혼자 아닐 터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성 충동이나 마찬가지로. 남자애들도, 사내들에 대해서도.

다음 화장실에서 그는 남자들이 평범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는 자신에게 되뇌고 또 되뇌었다. **연구실로 가. 집으로 가지 마. 곧장 연구실로 가는 거야.** 세 시간만 더 있으면 돼. 그는 북위 26도, 서경 81도에 멍하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다.

일기장에게. 오늘 밤엔 굉장한 일이 있었어. 아빠가 집에 왔지 뭐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택시를 세워놓고 문간에만 서 있는 거야. 날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깔깔거리게 웃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웃겼다는 소리야.)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 “할 말이 있어.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나빠지고 있어. 난 연구실에 가서 잘 테지만 그래도 둘은 떠났으면 좋겠어, 앤, 앤, 난 너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내일 아침 일어나 자마자 둘 다 비행기를 타고 마사에게 가서 거기 있어.” 난 아빠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 다음 주에 댄스파티도 있고, 마사 아줌마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호스\*에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난 소리를 질렀고 엄마도 소리를 질러댔고 아빠는 끄끙거렸어. “당장 가라고!” 그러더니 아빠가 울기 시작했어. 울었다니까!!! 그래서 나도 우와, 이걸 심각하구나! 깨닫고 아빠한테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날 잡아당겼어.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손에 이만한 칼을 쥐고 있는 거야!!! 엄마는 날 뒤로 밀어 넣더니 울기 시작했어. 아 앨런, 아 앨런,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빠, 난 절대로 아빠를 두고 가지

\* 캐나다 유콘 준주에 있는 도시

않을 거야. 딱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 두근두근하기도 했어. 어머니는 날 평소보다 더 아끼 취급하는데 아빠는 날 어른처럼 슬프고 그윽하게 보고 있었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앨런, 애는 제정신이 아니야. 여보 가요.” 이런 헛소리를 해서 다 망쳤어. 그러니까 아빠는 소리를 지르면서 문밖으로 뛰쳐나갔어. “사라져. 차를 타. 내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 이러면서….

아 참, 내가 하필 죄수복 같은 초록색 옷에 머리에 곁을 만 채 었다는 말을 안 했지. 운도 지지리 없지 뭐야,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인생의 잔인한 변덕이란 알 수가 없다니까. 어머니는 “얼른 짐 싸라!”고 외쳐대면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갈 생각이겠지만, 내가 마사 아줌마네 곡물 창고에서 가을을 보내면서 댄스 파티와 여름의 평판을 다 잃을 생각은 없다는 말을 또 되풀이하진 않겠어. 그리고 아빠는 우리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잖아, 안 그래? 난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진부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어머니가 위층에 올라갔을 때 떠날 거야. 연구실에 가서 아빠를 볼 거야.

아 참, 추신. 다이앤이 내 노란 바지를 찢어놔서, 그 대신 자기 분홍 바지를 입어도 좋다고 약속했어. 하하 과연 그날이 올까.

나는 에이미의 일기장에서 그 페이지를 뜯어내면서 경찰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에는 에이미의 일기장을 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봤지요. 아, 내 사랑스러운 어린 딸. 에이미가, 내 어린 딸이, 내 가없고 어리석은 딸이 그에게 갔구나. 내가 시간을 들여 설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미안해요, 바니. 그 약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놓아준 주사의 약효가 다해가나 봐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살해당했다는 것, 그 남자가 딸을 죽이고 자기 목을 그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들은 앨런의 편지를 나에게 줬다가 다시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앨런이 그 칼을 집어 들기 전에 쓴 마지막 말, 마지막 필체인데. 그이가 가기 전에…

난 기억해요.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가볍게, 결속은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는 무덤이 아닌 최후를 알게 되었다. 우리 인류의 결속은 끊어졌고, 우리는 끝장났다. 나는 사랑…”

난 괜찮아요, 바니, 정말이에요. 그런 말을 쓴 게 누구였더라, 로버트 프로스트였나요? **결속은 사라졌다**… 아, 그이가 그랬어요. 바니에게 ‘지극히 옳은 일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이 대답해줄 수는 없겠죠, 친애하는 바니. 이 글은 그저 제 정신을 유지하려고 쓰고 있을 뿐이니깐요. 당신의 은신처에 넣어둘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니. 정신이 흐릿했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 얼굴에 흙을 문질렀을 때도 당신이니까 옳은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바니, 난 당신이 말한 그런 끔찍한 말들로 당신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언제나 친애하는 바니였어요.

약효가 다할 때쯤에는 당신이 말한 대로 휘발유와 식료품을 다 준비할 수 있었어요. 지금 난 당신 오두막집에 있어요. 당신이 나

에게 준 옷을 입으니 사내애처럼 보이니 봐요. 주유소 남자가 “형씨”라고 부르더군요.

아직도 정말로 이해할 수는 없어서, 서둘러 돌아가려는 마음을 막아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건 알아요. 처음 외출해서 신문을 구할 수 있었을 때 아포슬 제도에 있는 피난처가 폭격당했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그리고 공군 비행기를 훔쳐서 델러스를 폭격한 세 여자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었죠. 물론 그 비행기는 바다 위에서 격추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하나둘씩 살해당하잖아요. 이제는 피난처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니 더 많이 죽겠지만... 최면에 걸린 토끼들 같아요. 우리는 이빨도 없는 종족이에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여자들이라는 뜻으로 “우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나와 앨런, 그리고 물론 에이미를 말하는 거였어요. 선별적인 살해는 집단 동일시를 촉진하죠. 내가 얼마나 제정신인지 알겠죠.

그래도 난 정말로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첫 외출은 소금과 등유를 구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 작은 〈붉은 사슴〉 가게에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뒷문에 있는 노인에게 물건을 받았어요. 봐요, 내가 제대로 기억했죠! 노인은 날 “자네”라고 불렀지만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노인은 내가 당신 오두막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쨌든, 앞문으로 남자들 몇 명이 들어왔어요. 웃고 농담하는 모습이 하나같이 정말 평범해 보였죠. 난 그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니. 사실은 그 사람들 옆을 지나쳐서 나가려다가 그중의 하나가 하



는 말을 들었어요. “하인츠가 천사를 봤어.” 천사라니. 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크고 번쩍거렸다더군요. 또 한 사람이 천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고 있는지 보러 온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스니\*도 해방구라고, 허드슨 베이까지 다 해방구라고 했어요. 난 몸을 돌려서 뒷문으로, 빨리 나갔어요. 노인도 그 남자들 말을 들었던가 봐요. 나보고 조용히 그러더군요. “난 어린 아이들이 그리울 거요.”

허드슨 베이라니, 바니, 그건 북쪽에서도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허드슨 베이라면 북위 60도쯤일 텐데.

하지만 난 뉘싯바늘을 구하러 한 번 더 그곳에 가야 해요.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는 어느 밀렵꾼이 죽인, 머리와 다리만 남은 사슴을 발견했어요. 그걸로 스투를 만들었죠. 암사슴이었어요. 그 사슴의 눈이라니. 지금 내 눈도 그 사슴 같을까 궁금해요.

\*

오늘 뉘싯바늘을 구하러 갔어요. 상황이 나빠서 다시는 못 가겠네요. 이번에도 앞문에 남자들이 있었는데, 전과는 달랐어요. 다들 사납고 긴장해 있었어요. 지난번처럼 젊은 애들이 섞여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새로운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해방구라는 표지판이겠죠.

노인은 잼싸게 뉘싯바늘을 주더니 소곤거렸어요. “다음 주면 숲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마을

에 사냥꾼이 가득할 거요.” 난 뛰다시피 나왔어요.

길을 따라 2킬로미터쯤 갔는데 파란 픽업트럭 하나가 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부근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폭스바겐을 별채로에 몰고 들어갔더니 고함을 치면서 지나가더군요. 나는 한참 있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와서 돌아왔는데, 차는 여기에서 2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두고 걸어서 왔어요. 덤불을 쌓아서 노란색 폭스바겐을 가리기가 얼마나 힘들던지요.

바니, 난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아무도 연기를 보지 못하게 농어를 날것으로 먹고 있지만, 그래도 사냥꾼들이 올 거예요. 침낭을 늪에 있는 큰 바위 옆으로 옮길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바로 앞줄까지 쓰고 나서 오두막을 나왔어요. 조금은 안전해진 기분이 들어요. 아, 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빠르게도 벌어졌죠. 여섯 달 전만 해도 난 앤 알스타인 박사였어요. 지금은 남편 잃고 자식도 잃은 여자가 되어 지저분하고 굶주린 채 죽도록 겁에 질려서 늪에 쪼그리고 앉아 있죠. 내가 지구에 남은 마지막 여자라면 재미있겠네요. 어차피 이 부근에 살아남은 여자로는 마지막인 모양이지만요. 히말라야에 몸을 숨기거나, 뉴욕 시의 폐허에 숨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겨울을 날 순 없어요, 바니. 영하 40도는 될 거예요. 불을 피워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연기를 볼 테죠.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숲은 몇백 킬로미터면 끝나요. 난 오리처럼 사냥

당할 거예요. 아니. 아무 소용 없어요. 혹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시도하고 있다 해도 제때 여기에 도착하지는 못할 거예요. 게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아니, 그냥 별이 보이는 바위 위에서 좋게 끝맺을래요. 돌아가서 당신에게 이 편지를 남긴 후에요. 마지막으로 숲에 아름다운 색이 드는 걸 보기 위해 며칠은 기다릴 거예요. 안녕히, 소중한 바니에게.

내 묘비명은 이렇게 굵어 넣을까 봐요.

###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천한 영장류, 여기 잠들다

\*

이 내용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용기와 힘을 끌어모아서 바니의 오두막에 갖다두지 않는 한...,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 여기에 하나 있는 비닐봉지 안에 넣어두자. 바니가 와서 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큰 바위 위에 있다. 곧 달이 뜨면 감행할 생각이다. 모기들아, 인내심을 가져라. 원하는 대로 실컷 먹게 될 테니.

내가 적어두어야 하는 내용은, 나도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이었다. 그 남자 말마따나 크고 번쩍거리는 게, 나무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하지만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딱 멎었고 파란 어치 두 마리가 경고음을 울렸기 때문에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점이 중요하다. 그게 **정말로 거기 있었다**는 점.

나는 바위 밑에 앉아서 그 형상을 지켜보았다. 그건 많이 움직이

지 않았는데, 몸을 구부리고 앞인지, 나뭇가지인지를 집어 들었다. 그러더니 몸 중간 부분에 어떤 짓을 했는데, 집어 든 물건을 보이지 않는 견본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같았다.

다시 반복하자. 그건 **정말로 있었다**. 바니, 혹시 이걸 읽게 되면 기억해요. **여기에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놈들이 우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서 멸종하게 한 거죠.

왜냐고요?

사람들만 없으면 좋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요? 폭탄, 살인 광선... 다 미개한 방식이죠. 엉망이 되어버리고요. 전부 부서지고, 구덩이가 패고, 방사능에, 땅을 망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혼란도, 호들갑도 없어요. 우리가 체체파리에 게 했던 것처럼요. 약한 고리를 집어서 공격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뼈만 몇 개 남죠. 비료로도 괜찮을 테고.

친애하는 바니, 잘 있어요. 난 봤어요. 그게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난 부동산업자를 봤다고 생각해요.**

웁긴이—저자가 쓴 원제목 나사파리(screwfly)는 체체파리(tsetse fly)가 아니다. 체체파리는 아프리카에 살지만 나사파리는 주로 아메리카 대륙 열대지방에 분포하며, 나사 무늬가 있는 구더기가 온혈동물에 기생하여 살아있는 조식을 먹는 위험한 해충이다. 다만 나사파리라는 이름은 생소하며, 검정파리로 옮기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뿐더러, 이전 국내에 소개되었던 제목을 기억하는 독자가 많으리라 여겨 그 제목을 그대로 살렸다. 작품에서 나사파리를 통하여 은유하고 있는 ‘생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전체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고 해충을 없애는 방법’은 체체파리 구제법으로 쓰였던 방법이기도 하므로 의미 전달에는 무방할 것으로 여긴다.